

# 四君子湯, 四物湯, 八物湯 및 十全大補湯의 처방 구성 및 용량 용법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약제제부

이경구 · 황대선 · 유영범 · 마진열 · 하혜경 · 신현규\*

## A Study On Compositions, Dosages and Usages of Sagunjatang, Samultang, Palmultang, Sipjeondaebotang in Literature

Dept. of Herbal Pharmaceutical Developmen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yung-Goo Lee · Dae-Sun Huang · Young-Beob Yu · Jin-Yeul Ma · Hye-Kyeong Ha · Hyeun-Kyoo Shin

The result is the followings after investigating composition, dosage and usage of Sagunjatang(四君子湯), Samultang(四物湯), Palmultang(八物湯), Sipjeondaebotang(十全大補湯) in literature by country and Era

1. Sagunjatang has become equal to Panax ginseng(人蔘), Atractylodes japonica(白朮), Poria cocos(茯苓) each for 2 Jeon(錢), Glycyrrhiza uralensis(甘草) 1 Jeon since the Ming Dynasty in China and it is standardized by Panax ginseng, Atractylodes japonica, Poria cocos and Glycyrrhiza uralensis each for 1 Jeon 2 Pun(分) 5 Ri(里) since Dongeuibogam in Korea.

2. Samultang has become equal to Angelica gigas(當歸) and Rehmannia glutinosa(地黃) each three Jeon, Cnidium officinale(川芎) is 1 Jeon 2 Pun or 1 Jeon and Paeonia lactiflora(芍藥) 2 Jeon since the Ming Dynasty in China and it is standardized by Angelica gigas, Cnidium officinale, Paeonia lactiflora and Rehmannia glutinosa each for 1 Jeon 2 Pun 5 Ri since Dongeuibogam in Korea.

3. In the case of Palmultang, compositional usage of medicine was different in the Ming Dynasty and the Ching(清) Dynasty in China. Total dosage was increased and ratio of Angelica gigas and Rehmannia glutinosa was increased comparatively in the Ching Dynasty. All prescription of medicine was consisted of 1 Jeon 2 Pun and specific dosage was presented except Euirimchwalyo(醫林撮要) that dosage was not recorded in Korea.

4. Sipjeondaebotang tended to increase total dosage in the latter part in China. Dosage was mostly used 1 Jeon thus Dongeuibogam but Bangyakhap(方藥合編) used 1 Jeon 5 Pun differentially.

Key Words : Sagunjatang, Samultang, Palmultang, Sipjeondaebotang

## I. 서론

四君子湯, 四物湯, 八物湯(八珍湯)<sup>1)</sup> 및 十全大補

\* 교신저자: 신현규,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약제제부, 042)868-9464, hkshin@kiom.re.kr

1) 조사 대상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한의서에서 八物湯과 八珍湯의 약물구성(사군자탕+사물탕)과 효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처방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

다. 湯은 모두 氣나 血이 虛損된 證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일상적으로 補藥으로 사용되어왔다. 이들 처방의 구성을 살펴보면 四君子湯과 四物湯이 합해져 八物湯이 되었고 여기에 黃芪 肉桂를 더하여 十全大補湯을 구성하였다. 四君子湯, 四物湯, 十全大補湯은 宋代 陳師文의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八物湯은

元代 朱震亨의 丹溪心法에 최초로 나타나고<sup>2)</sup>, 明代 薛己의 正體類要에 八珍湯 처방명이 처음으로 제시된다.

본 처방들의 효능이나 적응증에 대한 실험연구는 이미 상당수 수행되었으나 구성약물, 용량, 용법에 대한 각 시대별 변화와 중국·한국의 처방 비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에 역대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본 처방들의 구성과 용량을 알아보고 나라별, 시대별로 그 차이나 변화와 각 약물의 제법 및 복용법을 연구함으로써, 처방에 대한 해석과 투약량 설정시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II. 조사 방법

각 처방의 최초 기록으로 알려져있는 宋代 太平惠民和劑局方을 시작으로 중국 明·清代 및 한국 朝鮮時代의 醫書 수종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宋代 : 太平惠民和劑局方, 三因極一病證方論
- 金元代 : 丹溪心法, 東垣十書(醫壘元戎)
- 明代 : 醫學正傳, 萬病回春, 赤水玄珠, 濟陰綱目, 景岳全書
- 清代 : 古今名醫方論, 醫方集解, 湯頭歌訣, 傳青主男女科, 葉天士女科
- 한국 朝鮮時代 : 醫林撮要, 東醫寶鑑, 醫門寶鑑, 醫宗損益, 方藥合編

## III. 본론

### 1. 四君子湯의 시대·문헌별 구성약물 용량 용법

2)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337. 丹溪心法에 八物湯을 “四君子合四物湯, 右以水煎, 溫服”하라고 기재되어있어 人蔘, 白朮, 茯苓, 甘草, 當歸, 川芎, 芍藥, 地黃의 8가지 약제로 구성된 八物湯이 최초로 기재된 의서라 할 수 있다.

#### 1) 宋代-金元代

四君子湯이 수록된 최초의 문헌인 太平惠民和劑局方에는 각 약물의 투약 용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各等分으로 하였고 每 2錢씩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처방의 가공, 전탕, 복용법은 타 서적에 비해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수치법으로는 去蘆, 去皮, 炙등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 東垣十書중 醫壘元戎에는 茯苓 대신 砂仁으로 약물구성을 한 四君子湯도 있다.

#### 2) 明代-清代

대부분의 醫書에 약물 각각의 용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人蔘, 白朮, 茯苓에 비해 甘草의 용량을 적게 쓰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人蔘, 白朮, 茯苓의 대략 절반 정도의 용량을 사용하였다. 孫一奎의 赤水玄珠에는 甘草가 빠지고 黃芪가 들어간 四君子湯이 수록되어있다.

#### 3) 한국 朝鮮時代

모든 구성약물에 대한 용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許浚의 東醫寶鑑 이후에는 東醫寶鑑의 용량에 준하여 모든 약물 용량이 1錢2分5厘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대	서적명	人蔘	白朮	茯苓	甘草
宋	和劑局方 (1107)	(等分) 去蘆		去皮	炙
金元	丹溪心法 (1481 <sup>3)</sup> )				炙
	醫壘元戎 (1529 <sup>4</sup> )				
明	醫學正傳 (1515)	5.63	7.5	7.5	3.75
	萬病回春 (1587)	7.5去蘆	7.5去蘆	7.5去皮	3.75炙
	赤水玄珠 (1596)				黃芪
	景岳全書 (1624)	7.5	7.5	7.5	3.75炙
清	古今名醫方	7.5	5.63	7.5	7.5

	論(1675)				
	醫方集解 (1682)	7.5	7.5土炒	7.5	3.75
	湯頭歌訣 (1694)	7.5	7.5炒	7.5	3.75炙
	葉天士女科 (미상5)	7.5	7.5蜜炙	7.5	3.75炙
朝鮮	醫林撮要 (미상6)	(等分) 3.75	3.75	3.75	3.75
	東醫寶鑑 (1613)	4.7 去蘆	4.7	4.7	4.7炙
	醫門寶鑑 (1724)	4.7	4.7	4.7	4.7炙
	醫宗損益 (1868)	4.7去蘆	4.7	4.7	4.7炙
	方藥合編 (1885)	4.7	4.7	4.7	4.7炙

표 1 四君子湯의 시대별 약물구성 및 용량

## 2. 四物湯의 시대·문헌별 구성약물 용량 용법

### 1) 宋代-金元代

宋代의 太平惠民和劑局方과 三因極一病證方論에는 매회 복용분량이 나와있고 배합비율은 各等分으로 되어있으며, 처방의 가공, 전탕, 복용법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수치법은 去蘆, 酒浸, 酒浸洗, 炒, 熟乾, 酒洒, 蒸 등이 적용되고 있다.

### 2) 明代-清代

赤水玄珠, 濟陰綱目<sup>7)</sup> 등 일부 醫書를 제외한 대

3) 책이 편찬된 연대로 보면 明代이나 王好古, 朱丹溪는 金元대의 인물이므로 金元代로 표기하였다.

4) 李東垣 外.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洲出版社. 1983. p. 664. 東垣十書 중 醫壘元戎은 王好古의 著述이다.

5)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p. 119120. 葉桂의 字는 天士이고 1667년에 생하고 1746년에 졸하였다. 책은 1921년에 陸士諤이 編하였다.

6) 출판연대가 대략 明代에서 宣祖 初葉으로 東醫寶鑑보다는 앞선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정확한 연대가 밝혀지지 않았다.

7) 武之望. 濟陰綱目. 서울. 一中社. 1992. p. 16. 當歸 川芎 芍藥 熟地黃 右剉 各等分 每服四錢. 濟陰綱目は 약물구성비율이 各等分이고 매회 복용량이 나와있음을 통해 각 약물용

다수의 醫書에 약물 각각의 용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약물구성을 各等分으로 제시한 濟陰綱目과 약물용량을 알 수 없는 赤水玄珠를 제외하고 대다수 醫書에서 當歸와 地黃의 용량이 3錢 혹은 2錢으로 가장 많았고, 芍藥이 2錢 혹은 1錢半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川芎은 1錢半 혹은 1錢으로 가장 적었다.

地黃의 종류가 熟地黃으로 되어있는 대부분의 醫書와는 다르게 醫方集解와 湯頭歌訣에는 生地黃을 사용하였다. 葉天士女科에는 두 가지 용량구성 비율이 나와있는데 熟地黃, 當歸의 용량이 調經, 保產門에는 3錢, 安胎門에는 2錢으로 되어있다.

### 3) 한국 朝鮮時代

동일 용량으로 처방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용량을 제시하였다. 특히 許浚의 東醫寶鑑 이후에는 東醫寶鑑의 용량에 준하여 모든 약물 용량이 1錢2分5리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대	서적명	當歸	川芎	芍藥	地黃
宋	和劑局方	(等分) 去蘆 酒 浸炒			熟 乾, 酒 洒, 蒸
	三因論	(等分) 酒浸洗			熟
金元	丹溪心法	(等分)			
	醫壘元戎				熟
明	醫學正傳 <sup>8)</sup>	7.5	5.63	5.63	7.5熟
	萬病回春	11.25 酒洒	5.63	7.5	11.25 熟
	赤水玄珠				
	濟陰綱目	(等分)			熟
	景岳全書	11.25	3.75	7.5	11.25 熟
清	古今名醫方論	11.25	5.63	7.5酒炒	11.25 熟
	醫方集解	11.25 酒洗	5.63	7.5	11.25 生
	湯頭歌訣	11.25	5.63	7.5	11.25 生

량을 계산할 수 있다.

8) 虞溥.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 156. 四君子合四物

朝鮮	葉天士 女科	① <sup>9)</sup>	11.25 酒炒	3.75	7.5	11.25 熟, 酒炒
		② <sup>10)</sup>	7.5 炒	3.75	7.5炒	7.5熟, 炒
		③ <sup>11)</sup>	11.25	3.75	7.5	11.25 熟
朝鮮	醫林撮要	(等分)				熟 洗焙 酒炒
	東醫寶鑑	4.7	4.7	4.7	4.7	熟
	醫門寶鑑	4.7	4.7	4.7	4.7	熟
	醫宗損益	4.7	4.7	4.7	4.7	熟
	方藥合編	4.7	4.7	4.7	4.7	熟

표 2 四物湯의 시대별 약물구성 및 용량

### 3. 八物湯(八珍湯)의 시대·문헌별 구성약물 용량 용법

#### 1) 宋代-金元代

四君子湯, 四物湯, 十全大補湯이 모두 收載되어 있는 太平惠民和劑局方에는 八珍湯 혹은 八物湯의 기록이 없다. 조사된 醫書에는 약물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四君子合四物湯’, ‘四物湯 四兩 加 黃芪 甘草 茯苓 白朮 各一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東垣十

書의 醫壘元戎에는 人蔘 대신 黃芪로 되어있다.

#### 2) 明代-清代

김<sup>12)</sup>은 八物湯이 王肯堂의 六科准繩에 최초로 수

湯, 共爲一劑, 如上法, 加減煎服. 醫學正傳에서 八物湯의 처방구성 기재는 없어 각각 기재된 四君子湯, 四物湯 구성 약물 및 을 합하여 기재하였다.

- 9) 葉桂. 國譯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32. 葉天士女科·調經 經來盡後作痛.
- 10) 葉桂. 國譯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238. 葉天士女科·安胎 妊娠偏身痠懶.
- 11) 葉桂. 國譯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p. 254-255. 葉天士女科·保產 滑胎, p. 321. 氣虛發熱, p. 345. 頭痛, p. 347. 脇痛.
- 12) 김성훈. 四君子湯, 四物湯 및 八物湯이 Prednisolone으로 誘發된 생쥐의 면역반응저하에 미치는 영향. 동의병리학회지. 1987. 2(1). p. 43.

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八物湯은 元代 朱震亨의 丹溪心法에 최초로 나타나고 八珍湯은 明代 薛己의 正體類要에서 처방명이 처음으로 제시된다. 濟陰綱目, 赤水玄珠 등 일부 醫書を 제외한 대다수의 醫書에 약물 각각의 용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명대와 청대의 醫書상 구성 약물 용량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대로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용량이 증가하였고, 當歸와 地黃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명대는 甘草 비율이 적고 나머지 약물들은 같은 비율이지만, 청대는 다수 醫書에서 當歸와 地黃의 용량이 가장 많았고, 人蔘, 茯苓, 芍藥이 그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은 白朮, 川芎, 甘草 순이었다.

地黃의 종류가 熟地黃으로 되어있는 대부분의 醫書와는 다르게 醫方集解와 湯頭歌訣에는 生地黃을 사용하였다. 赤水玄珠에는 四君子湯에서와 마찬가지로 甘草 대신 黃芪가 들어있는데, 八珍湯(八物湯)이 四君子湯과 四物湯의 합방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3) 한국 朝鮮時代

醫林撮要是 약물구성 용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의서들은 동일 용량(1錢2分)으로 처방을 구성하였다. 특히 許浚의 東醫寶鑑 이후에는 東醫寶鑑의 용량에 준하여 모든 약물 용량이 1錢2分으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 四君子湯과 四物湯의 각 약물 용량은 1錢2分5厘이나 팔물탕의 약물용량은 각1錢2分으로 되어있다.

시대	서적명	人蔘	白朮	茯苓	甘草	當歸	川芎	芍藥	地黃
金元	丹溪心法								
	醫壘元戎	黃芪							熟
明	醫學正傳	5.63	7.5	7.5	3.75	7.5	5.63	5.63	7.5 熟
	正體類要	3.75	3.75	3.75	1.88 炙	3.75	3.75	3.75	3.75 熟
	萬病回春	3.75 去蘆	3.75 去蘆	3.75 去皮	1.88 炙	3.75	3.75	3.75	3.75 熟
	濟陰綱目								熟
	景岳全書	7.5	7.5	7.5	3.75 炙	11.25	3.75	7.5	11.25
	赤水玄珠				黃芪				
清	古今名醫	7.5	5.63	7.5	7.5	11.25	5.63	7.5	11.25

方論							酒炒	熟
醫方集解	7.5	7.5 土炒	7.5	3.75	11.25 酒洗	5.63	7.5	11.25 生
湯頭歌訣	7.5	7.5 炒	7.5	3.75 炙	11.25	5.63	7.5	11.25 生
葉天士 女科	①	4.5	4.5	4.5	4.5 炙	4.5	4.5	4.5 熟
	②	3.75	3.75 蜜炙	3.75	3.75 炙	3.75	3.75	3.75 熟
	③	7.5	7.5 蜜炙	7.5	3.75 炙	11.25 酒洗	3.75	7.5 熟, 酒洗
朝鮮	東醫寶鑑	4.5 去蘆	4.5	4.5	4.5 炙	4.5	4.5	4.5 熟
	醫門寶鑑	4.5	4.5	4.5	4.5	4.5	4.5	4.5 熟
	醫宗損益	4.5	4.5	4.5	4.5 炙	4.5	4.5	4.5 熟
	方藥合編	4.5	4.5	4.5	4.5 炙	4.5	4.5	4.5 熟

표 3 八珍湯(八物湯)의 시대별 약물구성 및 용량

#### 4. 十全大補湯의 시대·문헌별 구성약물 용량 용법

##### 1) 宋代-金元代

각 약물의 배합용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단, 各等分이라는 용량비율은 제시되고 있으며, 太平惠民和劑局方과 東垣十書에는 매회 복용량이 나와있다. 수치법으로는 焙, 炙, 洗, 去蘆, 酒洗, 蒸, 去粗皮 등과 不見火라는 수치 금기사항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垣十書의 醫壘元戎에는 大補十全散이라 하여 산제로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 2) 明代-清代

醫方集解를 제외한 대부분의 醫書에 약물 각각의 용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약물비율이 各等分이고 복용량을 알 수 있어 각 약물용량을 가늠할 수 있었다. 醫方集解의 경우 四物湯과 四君子湯을 합한 八珍湯에 黃芪 肉桂를 加하라고만 되어있어서 용량을 알 수가 없다. 等分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 當歸, 地黃의 용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肉桂, 甘草는 가장 적은

- 13) 葉桂. 國譯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八物湯) p. 9. 葉天士女科調經 過期經行.
- 14) 葉桂. 國譯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八物湯) p. 53. 葉天士女科調經 廿九三十歲經證. (八珍湯) p. 64. 四十七八經證. p. 255. 葉天士女科保產 滑胎. p. 307. 惡露不止. p. 318. 陰虛發熱. p. 370. 浮腫. p. 372. 大便閉結.
- 15) 葉桂. 國譯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八珍湯) p. 89. 葉天士女科調經 崩漏虛實證治.

편이다. 단, 傳靑主男女科에는 黃芪의 용량이 가장 많다. 葉天士女科에는 十全大補湯 처방이 3종류가 나오는데 각기 人蔘, 白朮, 甘草, 肉桂의 용량에 차이가 있다.

수치법을 살펴보면, 地黃의 종류가 熟地黃으로 되어있는 대부분의 醫書와는 다르게 醫方集解에는 生地黃을 사용하였다. 清代의 傳靑主男女科에는 黃芪를 生用하는 처방구성이 나오는 반면, 葉天士女科에는 蜜炙하라고 되어있다. 또한 葉天士女科에는 특이하게 白朮을 蜜炙하라는 수치법이 제시되고 있다. 赤水玄珠에는 十全大補散 혹은 劉河間十全散이라는 이름으로 수제되어있으나 제형은 湯劑이다.

##### 3) 한국 朝鮮時代

약물용량이 기재되지 않은 醫林撮要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일 용량으로 구성하였고, 복용량도 제시되어 있다. 특히 許浚의 東醫寶鑑 이후에는 東醫寶鑑의 용량에 준하여 각 약물 용량이 1錢으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 方藥合編에서는 ‘八物湯 加 黃芪 肉桂 各一錢’으로 되어있어서 黃芪 肉桂의 용량이 1.25錢이 들어가는 다른 약물과 용량의 차이가 있었다.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는 기존의 十全大補湯<sup>16)</sup>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白茯苓과 熟地黃을 빼고 少陰人藥인 砂仁과 陳皮를 加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대	서적	人蔘	白朮	茯苓	甘草	當歸	川芎	芍藥	地黃	黃芪	肉桂
宋	和劑局方	等分	焙	焙	炙	洗, 去蘆			洗酒, 蒸焙	去蘆	去粗皮, 不見火
金元	丹溪心法	等分									
	醫壘元戎	等分									
明	醫學正傳	等分							熟		
	萬病回春	3.75 去蘆	3.75 去蘆	3.75 去皮	1.88 炙	3.75 酒酒	3.75	3.75	3.75 熟	3.75	3.75
	濟陰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 16) 許浚. 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1999. p. 1176. 人蔘 白朮 白芍藥 炙甘草 黃芪 肉桂 當歸 川芎 白茯苓 熟地黃 各一錢 右剉作一貼 生薑三片 大棗二枚 水煎服.
- 17) 정규만, 구분홍. 십전대보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

清	綱目				炙				熟			
	景岳全書	7.5	7.5	7.5	3.75 炙	11.2 5	3.75	7.5	11.2 5熟	3.75	3.75	
朝鮮	赤水支珠	等分										
	醫方集解	7.5	7.5 土炒	7.5	3.75	11.2 5酒洗	5.63	7.5	11.2 5生			
	傳青男女科	11.2 5	11.2 5土炒	11.2 5去皮	3.75	11.2 5酒洗	3.75 酒洗	7.5 酒炒	18.7 5九蒸	37.5 生	3.75 去粗皮研	
	葉士科	①	11.2 5	11.2 5蜜炙	3.75	1.88 炙	3.75	3.75	3.75	3.75 熟	3.75 蜜炙	1.88
		②	3.75	3.75 蜜炙	3.75	1.88 炙	3.75	3.75	3.75	3.75 熟	3.75 蜜炙	1.88
		③	3.75	3.75 蜜炙	3.75	1.13 炙	3.75	3.75	3.75	3.75 熟	3.75 蜜炙	1.13
	醫林撮要	等分			炙				熟			
東醫寶鑑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熟	3.75	3.75		
醫門寶鑑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熟	3.75	3.75		
醫鑑宗損益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熟	3.75	3.75		
方藥合編	4.5	4.5	4.5	4.5 炙	4.5	4.5	4.5	4.5 熟	3.75	3.75		
東醫世保元	等分		陳皮	炙				砂仁				

표 4 十全大補湯의 시대별 약물구성 및

#### IV. 결론

四君子湯, 四物湯, 八物湯(八珍湯), 十全大補湯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의 시대별·문헌별 구성약물 용량 용법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四君子湯, 四物湯, 十全大補湯은 宋代 陳師文的

학, 1980. 5(2). p. 17.

18) 葉桂. 國譯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98. 葉天士女科·調經 殺血心痛.

19) 葉桂. 國譯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55. 葉天士女科·調經 卅二三歲經證.. p. 150. 葉天士女科·安胎 胎虛不安. p. 281, 308, 336. pp. 371372. 葉天士女科·保產 產門不閉, 惡露不止, 尊勞, 大便閉結.

20) 葉桂. 國譯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323. 葉天士女科·保產 乍寒乍熱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최초로 기재된 처방이다. 八物湯(八珍湯)은 宋元代에는 구체적인 약물구성을 명시하고있지 않고, ‘四君子合四物湯’, ‘四物湯 四兩 加黃芪 甘草 茯苓 白朮 各一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八物湯은 元代 朱震亨의 丹溪心法에서 처방명이 처음으로 기재되었다. 八珍湯은 明代 薛己의 正體類要에 처음 처방명이 기재되었다.

2. 중국은 宋代부터 金元代까지는 약물 구성 용량이 각 등분이고, 明代 以後로는 각 용량을 구체적으로 무게 단위(錢)로 제시하고 분량이 다르다. 반면 한국은 약물의 구체적인 무게 단위를 제시하지만 대부분 약물 구성량이 동일한 분량이다. 특히 許浚의 東醫寶鑑 이후에는 거의 東醫寶鑑에 기재된 구성 약물의 용량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의 醫書에는 본초 수취법, 가공법, 전탕법, 복용법, 금기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의 醫書에는 간단히 기재되는 경향이 있다.

4. 四君子湯에 관하여 중국은 明代 이후로 人蔘 白朮 茯苓 각 2錢, 甘草 1錢으로 통일되고 있으며, 한국은 東醫寶鑑 이후로 人蔘 白朮 茯苓 甘草 1錢2分5厘 등분으로 고정된다.

5. 四物湯의 경우, 중국은 明代 이후로 當歸 熟地黃 각 3錢, 川芎 1錢半 또는 1錢, 芍藥 2錢 으로 통일되고 있으며, 한국은 東醫寶鑑 이후로 當歸 川芎 芍藥 熟地黃 1錢2分5厘 등분으로 고정된다.

6. 明代와 清代의 八物湯 구성약물용량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清代로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용량이 증가하였고, 當歸와 地黃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한국의 경우에는 약물용량이 기재되지 않은 醫林撮要를 제외하면 모든 약물을 1錢2分으로 처방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용량을 제시하였다.

7. 十全大補湯은 중국의 경우 후기로 갈 수록 전체

적인 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東醫寶鑑의 용량 그대로 1錢씩 사용하였고, 方藥合編만 특이하게 1錢半씩으로 되어있다.

## V. 참고문헌

### <논문>

1. 김성훈. 사군자탕, 사물탕 및 팔물탕이 Prednisolone으로 유발된 생쥐의 면역반응저하에 미치는 영향. 동의병리학회지. 1987. 2(1).
2. 정규만, 구분홍. 십전대보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학. 1980. 5(2).

### <단행본>

1. 許浚. 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1999.
2. 羅美. 古今名醫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3.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4. 黃度淵. 醫宗損益 上. 서울. 麗江出版社. 1993.
5. 黃度淵. 醫宗損益 下. 서울. 麗江出版社. 1993.
6.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麗江出版社. 1993.
7. 武之望. 濟陰綱目. 서울. 一中社. 1992.
8.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影印本. 서울. 一中社. 1992.
9.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一中社. 1991.
10. 程玉書. 新編湯頭歌訣. 中國. 光明日報出版社. 1989.
11. 汪認庵. 醫方集解. 中國. 文光圖書有限公司. 1987.
12.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13.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14. 傅山. 國譯 傅青主男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5. 葉桂. 國譯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6. 金·李東垣 外.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洲出版社. 1983.
17. 張景岳. 張氏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83.
18. 葉桂 著. 嚴星橋 重校. 葉天士女科全書. 台北. 力行書局有限公司. 1981.
19.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20. 孫思邈. 赤水玄珠全集. 中國. 海著易堂藏版. 1913.

### <기타매체>

1. 楊禮壽. 醫林撮要. 안상우. (Digital)醫林撮要 [CD-ROM].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4.
2.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CD-ROM]. 上海人民出版社,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